



세월의 이끼에도 지워지지 않는 《세월》 호참사



4월 16일은 남조선에서 《세월》 호참사가 발생한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의 년륜은 한해, 두해 감

보수 《정권》이 삼켜버린 《세월》 호

2014년 4월 16일 아침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배는 《광》하는 충격과 함께 집착 기올이 지다가 완전히 뒤집힌채 2시간 20분만에 수심 37m의 해저에 침몰하였다. 당시 배에는 수학적여행에 오를 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비롯한 47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그가운데서 구조된 인원은 170여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승객은 중시 점프를 바다 물속에 잠겨 목숨을 잃었다. 하다면 어떻게 되어 이런 끔찍한 참변이 일어났는가.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무려 6시간이 걸렸고 배가 바다기슭에서 3km 떨어진 수역에 있었기때문에 빨리 대책해했더라면 격객들을 충분히 구원할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현장목격자들의 일치한 견해였다. 그러나 박근혜보수때담은 아무런 구조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박근혜는 《세월》호가 침몰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7시간동안이나 청와대안방에 자 빠져있었다. 그리고는 사건발생 8시간만에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얼굴을 내밀고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찾지 못했는가》라

얼마든지 구할수 있었다. 《박근혜정부는 눈앞에서 배가 가라앉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단 한명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격분에 넘쳐 단죄하였다. 《최악의 참사》, 《전세계를 경악시킨 대참극》, 《사고가 아닌 인재》라고 대서 특필하면서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에 의해 일어난것》이라는 《뉴욕 라

민심은 용서치 않는다

끔찍한 참변소식에 온 남조선민이 초상집으로 되고 침몰수역이 바라보이는 진라 남도 진도의 팽목항은 생애 같은 자식들을 줄지에 잃어 버린 유가족들의 가슴저지는 통곡소리로 차고넘쳤다. 남조선 각지의 곳곳에 수 백개의 분향소들이 생겨나고 추모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 나날 박근혜를 비롯한 보수적세력들은 희생자들을 우롱, 모독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망동들을 저지르지 않았다. 박근혜는 수많은 생명들을 앓아가는 대학살범죄를 저지르고도 회색진퇴를 《세월》 호선장과 선원들을 비롯한 아래출개들에게 넘겨 버렸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의 전신 《보수연립당》은 《세월》 호 참사를 《단순사고》, 《해상교통사고》로 규정하면서 어불체 덮어버려 버렸다. 보수세당은 어용언론들을 내세워 박근혜를 지켜세우면서 《사고현장방문》과 《구조활동동행》과도 요란하게 광고하였다. 당시 《KBS》

예수 꺾는 칼날을 견뎌낼 수 있는 민심의 의지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방위비분담금협상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마찰을 일으키고있다고 한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에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이 실무급에서 합의되어 쌍방정상들의 최종서명단계만 남았다고 법석 떠들어대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남조선 당국이 바라는 희망사항일뿐이었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바와 같이 미국은 국방성 차관보를 내세워 방위비분담금협상은 끝까지 않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나섰으며 남조선 강경 미군사령관은 트위터에 《김치국 마시라.》라는 글을 올려 남조선당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이불이 아니다. 이달에 들어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문제를 구실로 미군기지에서의 일하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에게 무규칙적조치를 강행하였다. 일이 이처럼 번져가고있는데도 남조선당국은 상진의 파렴치한 척사로서 한마디 못하고있으며 오히려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변명해보려고 구차하게 놀아내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이런 로판적인 조롱과 해대, 강박은 《동맹》관계가 아닌 주종관계의 실체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고 남조선당국이 상진으로부터 당한 또 하나의 수취라고 해

말마찬가지로 남조선당국이 미국상전에게 발라맞추며 《군정권 동맹》이니, 《철벽공조》니 하고 역겨운 나팔을 불어대지만 미국은 남조선을 언제 한번 동맹자로 대해준적이 없다. 미국의 눈에는 남조선인 저들의 탐욕의 배를 채워주는 수탈의 대상이고 마구 하대해도 되는 하인애 불과한것이다. 대양건너에 있는 무력한 상진 때문에 남조선당국은 곤욕만 치르고있다. 지금 미국의 오만한 처사에 격분한 남조선 각계층은 굴종과 예속의 산물인 불평등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로동자단체들은 경기도 팽목미군기지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주민이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제대로 안된다면 이유로 로동자들에게 해고를 가해두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초보적인 로동조건을 보장받자고 해도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아니라. 이달에 들어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문제를 구실로 미군기지에서의 일하고있는 남조선로동자들에게 무규칙적조치를 강행하였다. 일이 이처럼 번져가고있는데도 남조선당국은 상진의 파렴치한 척사로서 한마디 못하고있으며 오히려 저들의 가련한 처지를 변명해보려고 구차하게 놀아내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이런 로판적인 조롱과 해대, 강박은 《동맹》관계가 아닌 주종관계의 실체를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고 남조선당국이 상진으로부터 당한 또 하나의 수취라고 해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무런 결실도 없이 활동을 끝마치지 않고 안락하게 된것도 바로 저들의 총악범죄를 가리우기 위한 박근혜보수세당의 악랄한 방해책동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패들은 박근혜에게 붙어들어가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노력을 비난하던 국우익분자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 앉혀 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것도 부족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적》으로 매도하고 아예 해산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지난해에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전신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월》 호참사유가족들이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항언을 불어날라 못해 나중에 우러먹는다. 《집결집결하라.》, 《그만 우러먹으라.》고 악당질을 해대어 세고의 분노를 자아냈다.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수의 집단인 《미래통합당》이기에 이번에 《세월》 호참사에 관련되었는자들과 유가족들을 모두하던자들을 빼앗아 《국회》의원후보로 내세워 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샀다. 남조선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바다속에 가라앉아 목숨을 잃은지 6년이 되고 세월의 이기는 덮였지만 《세월》 호는 결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아직도 살인자들에 대한 파멸적인 원함과 분노가 쌓여있다.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

《세월》 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무런 결실도 없이 활동을 끝마치지 않고 안락하게 된것도 바로 저들의 총악범죄를 가리우기 위한 박근혜보수세당의 악랄한 방해책동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패들은 박근혜에게 붙어들어가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노력을 비난하던 국우익분자들을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 앉혀 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것도 부족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적》으로 매도하고 아예 해산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지난해에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전신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세월》 호참사유가족들이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항언을 불어날라 못해 나중에 우러먹는다. 《집결집결하라.》, 《그만 우러먹으라.》고 악당질을 해대어 세고의 분노를 자아냈다.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수의 집단인 《미래통합당》이기에 이번에 《세월》 호참사에 관련되었는자들과 유가족들을 모두하던자들을 빼앗아 《국회》의원후보로 내세워 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샀다. 남조선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바다속에 가라앉아 목숨을 잃은지 6년이 되고 세월의 이기는 덮였지만 《세월》 호는 결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아직도 살인자들에 대한 파멸적인 원함과 분노가 쌓여있다.



삼나라의 오만무례한 흉시

결의의 완전한 리행》이니 하는 주제넘은 나팔까지 불어대었다. 남조선인민들을 평하고있듯이 일본대사의 이런 오만무례한 행태는 일개국의 대사가 아니라 과거 《조선총독》의 행세 그대로이다. 대사의 발언에는 해당 국가의 외교정책이 반영되어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대사의 망발은 우리의 민족애를 저지른 천주에 용납 못할 파렴치악에 대한 청산 《북조선의 비핵화》니, 《제재장사군》으로 모두하였는가 하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층을 《북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 《종북파괴분쇄세력》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사단병력과 함께 도합 2만여명의 서울주변에 집결시키고 조선군대주둔지역과 서울일대를 삼엄한 경계태세에 두었다. 이와 함께 이도와 하세기와는 조선군대해산계획을 모의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차로 서울에 있는 시위보병 5개 대대와 기병대, 포병대, 교섭대를 해산시키며 2차로 지방에 있는 진

《잠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군대를 강제해산한 치떨리는 만행

적위기의 출로를 앞으로 반일항전의 바탕으로 될수 있는 조선군대를 전면해산하는데서 찾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간주하였다. 일본은 조선군대들을 망라된 서울시민들의 폭동이 식민지통치기반을 강화하려는 저들의 침략기도를 밀부리로부터 파란시킬 무서운 화근으로 될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일본은 조성된 정치

인민들에게 지저른 엄청난 과거 최악의 청산하지 않고있는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나라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약자에게는 포악하고 강자에게는 빌붙는 일본에 대해 《화해와 협력》을 운운하며 비굴한 자세와 굴욕적태도로 일관하고있는것도 삼나라의 횡포도 무관심한 태도를 더욱 부추겨주고있다. 파렴치하고 간교한 수법으로 라민족에 대한 지배와 간섭, 재침야욕을 추구하는 일본의 책동은 과거죄악을 친백배로 칠하려는 우리 민족의 분노의 불길만 더 타오르게 할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일본은 이와 같이 조선군대에 대한 포위환형성과 무장해제, 군대해산에 대한 강제법적조치를 날조한데 기초해서 조선군대강제해산식을 강행하는데로 나아갔다. 1907년 8월 1일 아침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와 조선군대 시위현대장들과 시위대장들 및 각 부대장들과 일본교관들을

자기 관저에 굶히 소집해놓고 가짜 《조칙》을 낭독하게 한 다음 오전 10시 훈련원(현명장)에서 군대해산식을 진행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오전 10시 훈련원두기에서 기병, 포병, 공병혼성부대들의 병력들로 삼엄한 경계진을 펴고 조선군대해산식을 강행하였다. 이때 조선군대해산식이 진행되던 소식을 미리 안 시위제1련대 제1대대와 제2련대 제1대대 병사들이 군대해산식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켜 반일항전에 떨기하였다. 급해맞은 일본군교관들은 무장해제당한 병사들이 훈련원에 집합하자 반일항전소식이 퍼지